



▶ 왼쪽부터 산요의 해외사업부 영업리더 시바키도 미노루, GHP개발부 가나이 히로시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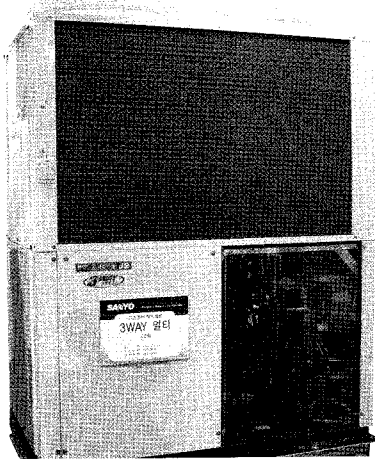
산요전기는 16년 동안 GHP기술개발에 매진해 현재 국내외에서 이 분야의 선두기업이다. 지난 96년부터 한국 공조시장에 진출, 4년 전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산요전기. 한국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산요전기를 지난 25일 한국 냉동·공조·위생기자전에서 만났다.

■ 박윤실 기자(yosili@energycenter.co.kr)

지난달 25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국제전시장(KINTEX). 일본 GHP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 일본기업이 한국진출 이후 처음으로 단독 출전해 관심을 모았다.

바로 산요전기(회장 노나카). 16년 동안 GHP기술개발에 매진해 현재 이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96년부터 한국 공조시장에 진출, 4년 전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이앤이시스템, 롯데기공, LS산전 등 3개 대리점을 통해 산요의 제품을 보급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 출전 역시 한국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한 산요의 의지 표현이다.

공조해외사업부 해외영업 리더인 시바 카도 미노루 씨는 “현재 한국의 공조시장에서 GHP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산요전기를 통해 GHP수요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산요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일본 GHP 기술개발 선도·국내 시장까지 확대

“산요의 GHP는 실외기의 경우 용량이 3마력에서 40마력까지 구색을 갖추고 있으며, 실내기는 20종류 113기종으로 장소와 건물, 빌딩 등의 평수에 따라 선택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GHP개발부 가나이 히로시 과장은 자사의 제품을 이렇게 설명했다. GHP(Gas Engine Heat Pump)는 LNG, LP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여 냉난방을 실현하는 히트펌프사이클.

일본의 GHP시장이 초기와 달리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산요의 몫이 크다. 산요는 용량의 확대는 물

론 친환경냉매 개발 등 일본 내 GHP의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COP 1.3을 달성한 데 이어 COP 1.5까지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냉매의 경우 R22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신 냉매인 R407C, R410A까지 개발해 친환경 GHP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한 3WAY 멀티 실외기는 실외기 1대당 최대 24대의 실내기를 설치할 수 있고 동시 냉난방 운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J2형 고효율 실외기를 적용해 35%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발전기를 탑재해 전기 사용량을 대폭 줄인 ‘하이파워’가 있다.

산요는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중 코아맨육성은 A/S뿐만 아니라 산요제품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매년 각 대리점의 코아맨을 육성해 기술을 체득하고 유지보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한다. 보통 일본의 ‘산요연수센터’에서 기술 강습, 유지보수 대응 방법 등을 교육하며, 대리점뿐만 아니라 대리점이 인정한 협력사에도 코아맨 교육을 실시한다.

환경냉매 개발로 경쟁력 강화

산요는 지난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반도체산업을 커버하기 위해 환경냉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의 일환으로 산요는 ‘점포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하여 대형슈퍼나 편의점의 쇼케이스와 공조를 이원화하는 것으로 전력량과 비용의 절감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산요도쿄공장’은 환경냉열사업으로서의 제조체계의 통합화를 위한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주력

산요전기는 가전회사에서 에너지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기업이다. 차세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태양전지, 연료전지, 태양광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했으며, 휴대용 전자기기의 심장으로서 불리는 2차전지 부문 세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리튬이온전지 등 2차전지시장 전 부문에 걸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태양전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2차전지시장도 2010년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조부문의 경우 GHP와 함께 흡수식냉동기, 패키지 에어컨 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는 삼성전자와 고효율 냉난방기기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

속하기로 ‘제3차 공동개발 계약서’를 체결. 두 회사의 고유기술을 접목한 ‘고효율 냉난방 멀티 인버터 에어컨’을 개발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 세계최대 공조기기업체인 미국의 캐리어사와 흡수식 냉동기 업무제휴를 체결. 산요전기의 기술력과 제조능력에 캐리어의 판매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가 커질 듯하다.

또 산요는 이미 시장점유율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전지 사업에서 세계1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2010년도까지 생산능력 1GW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